

광복 51주년 특집

‘조선불교 선종종헌’ 61년만에 햇빛



한일합격서상법국민운동본부(상)는 공 한일협정 개정안을 만들어 한일 양국 정부에 제출하고 국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불평등 한일협정 시민단체 개정안 확정

일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방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질문은 한일간의 관계를 함축하는 말로 받아들여진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영화와 대중음악이 공개적·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 2002년 월드컵을 공동으로 개최해야 할 두 나라의 관계는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여민 군사정부와 일본 사이에 줄속으로 체결된 것으로, 일본의 침략사실과 강압행위가 누락돼 있다'며 기본조약 개정안에는 한국의 주권 침해와 가해행위를 한 것에 대한 사과와 사죄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방조약 무효... 동등관계로”

위안부 배상등 과거사죄 명시해야

학계의 주장은 설득력을 지닌다. 한일합격서상법국민운동본부(상) 임의장 김명준은 지난 7월 26일 운동본부 결성 1년에 즈음에 '한일협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과 '한일합격서상법' '재일동포법적지위협정' '한일문화재협정' '한일어업협정' 등 4개 부속협정으로 구성된 한일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고 문화재 반환의 법적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에는 2만3천여점의 우리나라 문화재가 있다.(94.9 국정감사 자료) 토론에 나선 신원호교수(서울대)는 '한반도 강점과 관련된 기본조약은 당시부터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원인무효'라고 강조하고 '정부와 외무부는 개정안을 만들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공청회를 토대로 최종안을 만들어 한일 양국정부에 건의하고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본격적으로 펼 계획이다.

정성은 기자

정신대실상등 8·15 특집방송 다채

8·15 광복 51주년을 맞아 불교 TV와 불교방송이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불교TV △해의특별기획 불교의 땅 히말라야 1,2부(12.13일 낮 12시35분)=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는 티베트인들의 불교관과 생활상을 칼라차크라회화등을 통해 보여준다. △달라이라마 특별인터뷰·자비와 화합의 시대(14일 낮 12시35분)=인도 타보사에서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통하는 달라이라마를 정우스님(불교TV 전무이사)이 대담자로 나서 티베트인과 한국 불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다.

△8·15 특집-다시 이 생령 다하도록(15일 오전 10시15분)= '나눔의 집' 정신대 할머니들을 비롯 생존해 있는 정신대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청산하지 못한 일제 잔재를 재조명한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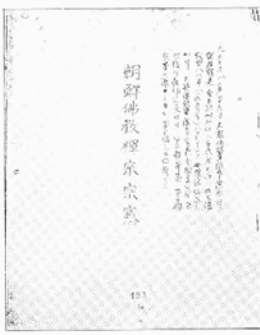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광복 51주년 기념 한밤의 트롯트 대행진(15일 밤 7시20분)=광복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유행했던 트롯트 가요를 들려준다. 19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통 트롯트에 얽힌 이야기와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1935년에 제정공포된 것으로 알려진 <조선불교선종종헌>이 최초로 일반에 공개된다. 이 문서는 재야불교사학자인 고이재열씨의 가족이 7년전 동국대 도서관에 기증했던 유품에서 발견된 것으로, 도서출판 민족사가 오는 9월 발간할 예정인 <한국근현대불교사료전집(김광식·이철교 공저)>을 통해 최초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민족사 내달발간 '불교자료전집'에 수록

조선불교선종종헌(이하 '종헌')은 1921년 창설된 선학원이 1934년 12월 재단법인 조선불교선리학회원으로 그 조직을 전환하고 개최한 전국수좌대회에서, 일제치하에서 피폐해 가던 한국불교의 전통사수와 교단 부흥을 목적으로 한일운동 차원에서 제정한 종헌으로서 1934년 12월 30일에 제정공포됐고 이듬해인 1935년 1월5일부터 공포시행되었다. 종헌은 선사문, 종당과 종지, 종정, 전국수좌대회, 종무원, 위원회, 계단, 사찰, 보칙 등 총 18장 102조



정통불교 사수 항일차원에서 제정 종정 '終身' 승단 '독신' 규정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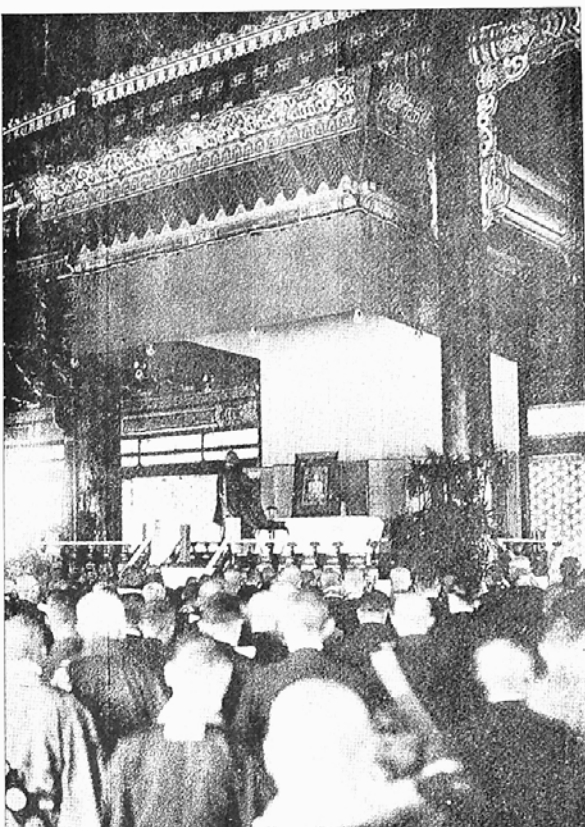
로 구성되어 전 장을 통해 당시 한국불교계의 현실인식, 항일불교의 정신, 비구승단으로 맥을 이어나가는 정통불교의 수호의지 등을 보여 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주목할만한 내용으로 종정의 임기를 종신으로 규정했으며 승단은 독신의 남녀승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이철교씨(동국대 경주도서관 열람과장)는 "조선불교선종종헌은 현 조계종 종헌의 도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종헌은 '본종은 신라도의사자가 창수한 가지산문에서 기원되어 고려 보조국사의 중흥을 거쳐 태고보우국사의 제종포섭으로서 선종이

에 하동산, 재무부장에 김남전 스님 등이 추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시 기라성 같은 선사들이 이에 동참해 일본의 영향 아래 대처승이 확산되고 있는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고수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당시 한국불교는 일본 총독부의 사찰령 선포등 많은 변화속에서 조선불교선교양종을 종명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일제치하속 대처등으로 문란해 가는 전통불교의 승종과 정통성을 사수하려는 선방수좌들로 구성된 선학원측 승려들이 정통비구임을 자처하면서 독자적인 선종을 내세우기 위해 조선불교선종종헌을 제정 공포하게 된 것. 당시 이를 위해 어떤 성격의 모임이 개최됐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가 전해지지 않지만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선학원 핵심 멤버 중심으로 제정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종헌 자료집의 앞표지에 '1963년 12월26일 조계종 총무원 총무과장 김규열에게서 입수하였는데 이는 1955년 8월 12일 전국승려대회에서 조계종헌을 제정공포한 이후 위작한 것이니 제2조 제2항, 제2조 및 제6조종 특히 제2조는 그 명중이다'는 이재열씨의 필적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이 종헌의 제정과정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지금까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대처 비구간의 갈등이 한창이던 1960년대 이후 위작에 대한 의심도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김광식씨(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원)는 "이 '조선불교선종종헌'은 일제시대 불교계가 항일운동의 차원에서 정통성사수를 위해 벌였던 노력의 흔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공개되는 이 종헌을 다각도로 분석 연구해 그 진의를 밝혀내는 것이 불교계의 남은 과제다.

이은지 기자



근정전 친일법회 일제는 친일파 한국인과 한국에서 포교활동을 전개하던 불교계 일본인들을 일장세 위 식민통치를 합리화하고 한국인들을 순응시키려는 계략으로 1920년대부터 불교의호단체 '조선불교단'을 만들고 이를 적극 활용, 친일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사진은 조선불교단 주최로 1935년 11월 경복궁 근정전에서 열린 조선불교대회 법회 모습. (사진제공=동국대 도서관)

1926년 불교계 현황

구분	사찰수 (개)	비구수 (명)	비구니수 (명)	신도수 (명)	포교수 (개)	포교사수 (명)
경기	183	960	203	17,275	-	7
충북	35	132	53	4,092	-	1
충남	102	449	126	4,600	-	1
전북	115	207	7	5,939	12	16
전남	138	843	65	10,989	35	8
경북	195	922	20	40,420	20	18
경남	174	1,223	143	61,451	49	18
충청	49	270	17	1,706	5	-
평북	40	43	3	913	-	4
평남	105	116	5	4,229	-	3
강원	125	735	78	4,850	20	4
함남	79	284	124	10,802	-	2
합계	23	40	-	2,664	-	-
합계	1,363	6,324	864	170,213	141	82

조선불교일람표로 본 교계현황 70년동안 승려수 3배 신도는 40배 증가

'조선불교일람표'는 재단법인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에서 1928년 3월에 간행한 불교계 현황조사서이다. 이 일람표는 1915~1926년까지의 승려 및 신도수 등 제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집계하고 있어 당시 불교계 현황을 살펴볼 데 긴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일람표를 근거로 1985년 인구센서스 결과(통계청)와 비교하면 승려수는 약 3배 사찰수는 약 7배 증가했으며, 신도수는 무려 약 40배 정도로 급격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관려도표 참조> 이 일람표에는 당시 전국 강원현

황, 조선불교 경영학교, 조선사찰일람표, 포교당조사표, 사찰승수 등 불교계의 현황을 수치로 설명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고운사를 비롯 총 15곳에 있었으나 이 가운데 고운사, 건봉사, 석왕사 등 8곳은 현재 이북에 있거나 사찰 소실등의 이유로 폐지되었다. 또한 당시 각 사찰에서 일제하 민중 계몽의 성격을 띠고 아학의 형태로 개설됐던 조선불교 경영학교도 경남 통도사(보통학교), 함남 석왕사(보통학교), 경북 김용사(지방학립) 등 6곳에서 전개됐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완전한 비움, 찬란한 고요, 절대적 순수와 사랑 앞에서 나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서른세 해 동안 물만 마시고 산 사람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 - 양애란 이야기



●양애란 선생님은 서른세 해 동안 물만으로 삶을 지탱해 오신 분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삶을 사시면서 역시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초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열세 살이 되던 해 어느날 갑자기 먹었던 밥을 토해내면서 여느 아이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으면 그녀는 잠도 자지 않고 자리에 눕지도 않은 채 무아의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삼십대 중반까지 두 다리가 이유없이 썩어 들어갔던 일, 스물네 시간 동안 허가 빠져나갔다가 들어가기로 되풀이 했던 일, 열 손가락 밑에서 고름이 쏟아져내렸던 일 등 질병과는 무관한 특별한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물만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고 합니다. 그녀가 다른 이의 전생을 읽는다거나 남의 지병을 씻는 듯이 낮게 하는 등의 현상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 일이 있고 난 뒤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늘의 담금질이었다고 받아들였고, 이제는 어떻게 찾아온 이들의 병을 낫게 해주고, 사람들이 맑고 깨끗한 마음자리로 돌아가 행복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십니다.